

2023 년 성 도미니코 축일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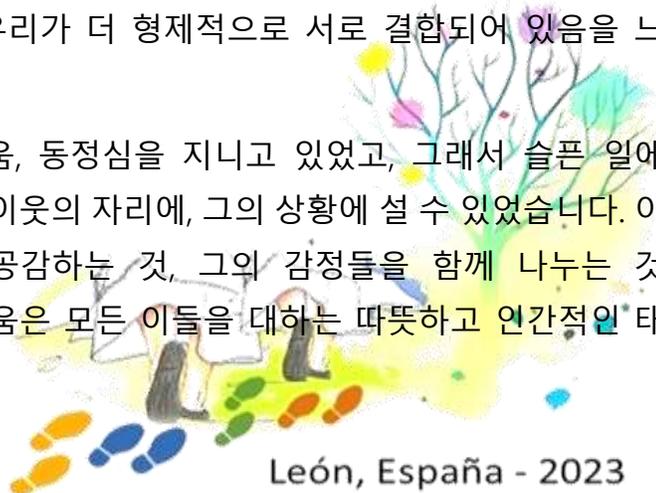
중간 총회를 마치고 우리 사부 성 도미니코 축일을 맞이하면서, 성 도미니코가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어디에서 우리 사명을 수행하든지 언제나 시의적절한 카리스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도록 여러분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부는 우리에게, 그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게도 계속 생명을 주어야 하는 카리스마를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중간 총회에서 우리는 우리 수녀회에서 권위의 행사와 시노달리타스에 관한 서로 다른 체험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체험들은 때로는 우리 사부 성 도미니코가 충만하게 살았고 도미니칸 가족의 특징이 되기를 바랐던 진리와 자비의 전달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이에서 돌봄의 문화를 강화하고 우리의 수녀회 구조 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시노달리타스를 더 실제적이 되게 하도록 부름받았음을 느낍니다.

우리 사부를 더 가까이 바라보고, 모든 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나 권위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의 섬세함을 배우도록 합시다. 그의 첫 전기 작가이며 후계자였던 삭소니의 조르단은 우리에게, “그의 기쁨으로 모든 이들에게서 쉽게 사랑을 받았고, 그를 보는 이들은 그에게 사로잡혔다. 어디에 있든지, 집에서든지 설교하며 여행하고 있든지, 언제나 교훈적인 말을 했으며 많은 모범들로 믿는 이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생활은, 언제나 우리의 말이 듣는 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주의한다면 모두가 성장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격려, 위로, 지지의 말, 그리고 용서를 청하는 말은 자매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더 형제적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음을 느끼는 배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도미니코는 민감함, 부드러움, 동정심을 지니고 있었고, 그래서 슬픈 일에서나 기쁜 일에서나 자기 자신을 벗어나 이웃의 자리에, 그의 상황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은 그와 공감하는 것, 그의 감정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민감함과 자애로움은 모든 이들을 대하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태도로

**Caminando juntas
hacia la cultura del cuidado
y sinodalidad.**



León, España - 2023

나타났습니다. 모든 이들에 대해 느꼈던 자애로움 때문에 그는 형제적 교정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큰 사랑 안에 모든 이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였기에 모든 이들에게서 사랑을 받았다.” 그에게 인간의 존엄성은 신성한 것이었고, 그래서 언제나 아무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않으면서 언제나 친절하게 교정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연대성, 단체성, 진리와 공동선의 추구의 가치들도 고려했습니다.

그의 전기를 썼던 베드로 페란도에 따르면, 동정심은 그의 어린시절에도 이미 빛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정심이 그와 함께 자랐다. 자신 안에 다른 이들의 비참함을 느꼈고, 어떤 고통을 볼 때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젊은 도미니코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팔렌시아에 큰 기근이 닥쳤을 때, 도미니코는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 가진 모든 것을, 가장 귀중한 것이었던 책들까지 내놓았습니다. 그 책들은 필기를 가득 해 놓은 것이었고,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우리 사부의 연대성이 빛났습니다.

그는 시대의 표징들에도 주의를 기울였고, 인간적 현실과 이 세상의 사건들에 민감하고 개방적이었습니다. 그 사건들 안에서도 하느님이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하느님의 눈으로 보았고, 각 순간을 복음의 빛으로 이해하고 비추어볼 수 있었으며, 형제들과의 대화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청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자문해 봅시다. 우리의 경청 방식은 어떠합니까? 참된 경청은 청각만이 아니라 모든 감각을, 그리고 감정 이입을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의 길에서 동반을 느끼도록 하되, 여기에서 추구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 사부 성 도미니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삶과 지금의 사회에 이렇게도 현실적이고 필요한 이 특징들을 우리 안에서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하겠습니다.

길의 성모님 앞에서, 우리의 매일의 길을 보호해 주시기를 청해 봅니다.

기쁜 우리 사부 성 도미니코 축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형제의 포옹과 기도를 보냅니다.

총장 M^a Asunción González, O.P. 수녀

Caminando juntas
hacia la cultura del cuidado
y sinodalidad.



León, España - 2023